장흥 주민들, 서울 길 고달프다

직행버스 인근지역 곳곳 경유 '거북이 운행'

승객들 5시간 이상 시달려…직통노선 신설을

장흥과 함평 등 도내 일부 지역에 서울행 시외 고속버스(직통) 노선이 없어 인적·물적 교류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군단위 지자체 지역과 서울간 직통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반면 장흥과 함평지역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일부 지역을 경유해 직행버스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다.

장흥지역의 경우 1일 서울간 우등(5회) 5회와 일반(1회) 등 6회의 버스가 왕복 운행되고 있으나 영암과 화순·능주를 각각 경유해 시외 직행버스 체제로 운영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영암을 경유하는 노선은 국도 2호선(강진 방면)을 거쳐 국도 13호선 따라 운행, 광주지역을 통과하는데 무려 2시간여 이상 소요돼 승객들이 지루함을 토로하고 있다.

국도 2호선과 29호선(보성 방면)을 거쳐 운행되는 화순·능주 경유 노선 또한 승객들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2개 노선 모두 일시정차만 하지 않을 뿐 보성읍과 강진읍을 경유하는 바람에 평상시 서울~장흥간 시간대는 실제로 5시간 이상 소요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승객들이 장흥과 서울을 오가는 시외 직행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광주까지 직통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시외 고속버스 노선인가에 있어 이용객 편익이 아닌 운송조합 손익에 우선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과 서울간 시외 고속버스(직통) 노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외직행버스 노선은 도지사가 도단위 버스운송조합 측의 신청에 의해 인가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대나무 숲 죽녹원 찾은 美 학생들 최근 담양을 방문한 미국 고등학생들이 죽녹원을 둘러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교류재단의 미국 고등학생 대상 방한 초청사업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담양군 제공〉

뱅뱅이골 산림욕장 "새 이름 지어주세요"

영암군 내달 9일까지

영암군은 금정면에 위치한 '뱅뱅이골 삼림욕장' 새 이름을 오는 9월 9일까지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영암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설문조사에 답하면 된다.

설문조사를 마친 후 오는 10월 중에 자체심사와 지명위원회를 통해 새 이름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뱅뱅이골 삼림욕장은 금정면 활성산 일원에서 흐르는 청정 자연수로 이루어진 유원지로 지난 2008년 총 4억 4000여만원을 투입해 2009년 7월 개장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나주 농업용 저수지에 불법 건축물

수년째 무허가 식당영업… 관리 책임 맡은 농어촌공사 묵인 말썽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수년째 무허가로 식당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이를 묵인한 채 방치하고 있어 말썽이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따르면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54-1번지에 있는 원목제(8816㎡)는 지난 1992년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업기반시설물로 관리를 지정받아 그동안 낚시터 영업을 조건으로 특정 개인에게 연 33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2월 임대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한후 반환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버젓이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는 수년째 허가없이 식당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원목제를 임대했던 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의 사용 및 임대 승인조건에는 낚시터 이외의 목적으로 영구 및 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임대 과정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수년째 묵인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특히 인근 전남도 산림연구소가 원목제를 수생 식물원으로 조성하고 싶다며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요구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정식 입장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석봉 연구사는 "방송에 소개된 후 평일 100여명, 주말 300여명 가량 산림연구소를 방문하고 있다"며 "원목제가 연구소 정문 초입에 있어 수생식물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농촌공사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주지사 측은 계약 당시 740여만원의 복구예치금을 받은 상태인데도 4년이 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행정대집행 등은 전혀 시도하지 못한채 원목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원목제를 용도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등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색깔 벼 심어 '친환경 농업' 이색 홍보

장성 구재상씨 4000㎡ 논에 '녹색의 땅 전남' 새겨 눈길

장성군 남면 들녘에 '친환경 농업 일 번지 전남' 홍보 문구가 새겨져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장성군 남면 분양리 시목마을 구재상(56)씨는 4000㎡의 논에 유색벼 품종(온통보라·황미)을 이용해 '녹색의 땅 전남' 문구를 새겼다.

한 글자당 크기는 가로 11m·세로 12m로 현재 출수기에 접어들며 색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과 지역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구씨는 "전남의 친환경 안전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이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에 글씨를 새겼다"며 "쌀을 비롯한 친환경 전남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을 홍보하는 글자와 문양을 새겨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내장산 유스호스텔 본격 추진

정읍시 내년 3월 착공… 지상 5층·객실 80실 규모

지난 2007년 기공식 이후 지지부진했던 정읍 내장산 유스호스텔 공사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지난 6월에 내장산 유스호스텔 건축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이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건축허가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주)잔디로골프텔은 빠른 시일내에 토목공사에 착수해 11월까지 발파암 정리와 진입도로 개설을 마치고 내년 3월께 건축공사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 내장산 유스호스텔은 정읍시 부전동에 부지 8만9105㎡에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이다.

유스호스텔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에 객실 80실을 갖추고 368명이 동시 숙박이 가능하도록 건축될 예정이다.

또 세미나실과 간이 골프시설, 자연체험장 등 부대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시는 내장산 유스호스텔이 본격 운영되면 그동안 수학여행 등 단체로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과 내장산 단풍 성수기 행락객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화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잔디로골프텔 노진구 대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호텔에 버금가는 명품 유스호스텔로 지어 정읍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춘향골 포도 해외 수출 남원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해외로 수출할 포도선별 작업이 한창이다. 남원시는 지난 19일 베트남 5t을 시작으로 영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지에 30여t의 포도를 수출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익산시립도서관 '시민 사서 아카데미' 운영

익산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민사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다음달 8일부터 15주간 총 15강좌에 걸쳐 진행되는 사서 아카데미는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책읽기의 중요성 ▲이용자 응대 요령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이론과 실무 교육으로 구성된다.

사서 아카데미를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명예 시민사서 수료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23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063-859-3727)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주역사박물관, 조선왕실의 역사 체험

전주역사박물관은 9월 말까지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선왕실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의 뿌리,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조선왕실의 시조 사당인 조경묘와 경기전을 둘러보고 전주 역사박물관이 열고 있는 '조경묘 창건 24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며 조선의 역사를 배운다.

자신의 가계도를 그리고 부채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없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근대역사 문화단지 탐방 희망자 모집

군산시는 관내 근대역사 문화단지 일원을 탐방할 희망자를 모집한다.

군산시가 '제5회 전국 도시의 날' 행사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10월 7일 실시되는 이번 도시탐방은 조선은행을 비롯한 내항, 뜬다리 부두, 장기 18은행,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세관, 동국사, 이영춘 가옥 등을 둘러본다.

참가 희망자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000원(교통비·식비 포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고창보건소 모기 유충 천적 미꾸라지 방류

고창군 보건소는 최근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로 인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18일 아산면 인천강에 모기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모기유충을 없애기 위해 매년 13만여 마리의 미꾸라지를 방류해오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유충 1100마리 정도를 잡아먹어 모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음창영기자 young@

고택·종택에 관광상품 입힌다

道, 한곳 당 1~2억 지원… 전통생활용품 등 설치 명품화

전북도는 150년 이상 된 고택(古宅)과 종택을 명품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도내에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150년 이상 된 고·종택 중 활용 가능한 곳은 13곳이다.

하지만 도는 이들 고·종택에 관리인이 없거나 시설이 미흡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소품이 없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 개소에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은 국비와 각 시·군비를 비롯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 공단과 한국 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지원 협약(MOU)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통생활용품과 실내장식 소품을 설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명품화 사업의 목적"이라며 "전통 목조건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4~2010년 전북 13개소를 비롯해 경북 47개소·전남 17개소·충남 7개소·경남 7개소 등 고택 99개소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전주 우주식 비빔밥·막걸리 기내식 공급

이스타항공 10개 노선

전주에서 생산되는 우주식 비빔밥과 막걸리, 모주가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에 기내식 형태로 공급된다.

우주식 비빔밥은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이 지난해 정읍방사선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제품으로 우주에서도 따뜻한 물만 부으면 간단하게 복원해 먹을 수 있다.

㈜전주주조가 생산하는 전주막걸리와 모주는 우리 쌀과 밀, 맑은 물로 만들어 맛이 좋고 영양성분이 풍부해 해외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들 제품의 맛과 품질이 뛰어나 기내식으로 쓰기로 했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이들 제품은 이스타항공의 국내외 10여개 모든 노선에서 기내식 등 형태로 승객에 판매된다.

전주시 최락기 한스타일관광과장은 "전주의 대표 브랜드인 비빔밥과 막걸리 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주에서 생산되는 한지 지갑과 넥타이 등도 기내 면세품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서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 공연

내달 20일 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가 오는 9월 20일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한국 마사회(KRA)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뮤지컬은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내용으로 모두가 같이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뮤지컬 배우 박해미와 개그맨 김한국, 필리핀 인기배우 체리 쉬 등이 출연하며, 공연 끝 부분에 김제시 지역 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전격 출연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